

종합병원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간의 관계

박점미¹, 신나연^{2*}

¹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수간호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Job Stress and Somatic Symptoms of Nurses Working in Cancer Unit and General Unit of General Hospital

Jummi Park¹, Nayeon Shin^{2*}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²Unit manager,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참가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114명의 간호사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을 확인하고 두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암병동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이 모두 높았으며,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모두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병동 간호사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및 호스피스 간호와 관련한 심리적 지원을 통하여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나타날 수 있는 신체화 증상을 예방하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 병원, 암, 간호사, 심리적 문제, 행동 문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stress from nursing care between nurses in cancer unit and nurses in the general unit. A total 114 of nurses were recruited from a general hospital. The job stress level of the nurses and the somatic symptoms level of the nurses working in cancer uni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evel of the nurses working in general unit.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methods that contrive to perform care efficiently by generating hospice nurses.

Key Words : Hospitals, Neoplasms, Nurses, Psychological Phenomena, Behavioral Disciplines and Activitie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 현장에서 환자 및 가족을 포함한 간호대상자들에게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상 현장의 최일

선에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는 의료기관 보건인력의 주요 핵심 인력이다[1]. 간호 업무 특성상 다양한 간호 중재가 요구되는 환자와 많은 접촉을 하며 간호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여러 유관 부서와 끊임없이 접촉을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Namseoul University fund.

*This research was revised manuscript represented at 2022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fall conference.

*Corresponding Author : Nayeon Shin(nabong78@chamc.co.kr)

Received March 9, 2023

Revised May 16, 2023

Accepted June 20, 2023

Published June 28, 2023

해야 하는 간호사는 다른 직종의 보건 의료인들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고 감정노동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2]. 적정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가 역할 수행을 촉진하여 오히려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있지만[3], 다양한 건강 요구를 가진 간호 대상자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안전 사고 또는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긴장 및 주의 집중이 수반되고[4] 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사에게 어깨 결림이나 요통[5], 위장장애, 두통 등과 같은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고[6] 업무수행능률을 감소시켜 환자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며 간호업무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나타났다[4].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불편감 중 신체화 증상이 있다[7]. 신체화 증상은 정서적 표현의 억압되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노력등으로 인하여 신체 증상에 대한 감각의 과잉화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신체화 증상이 만성화되면 업무의 효율성 감소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게 된다[8].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절해 주어야 한다. 신체화 증상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연구된 바 있으며[9] 신체화 증상의 변인에 노출되어있는 간호사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만성화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으며, 개인의 건강은 물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8].

이렇게 의료기관이 영역별로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호 근무 환경도 세분화되었고, 이로 인한 임상 현장에서 부서별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나 신체화 증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10]. 이에, 부서별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지속적인 증가 추세의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과 일반병동 간호사들 간의 직무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정도를 확인하고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근무 부서에 따른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신체화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간호사의 직무 환경 개선과 이들의 건강 관리를 통하여 간호 전문직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고 대상자에게 보다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인력관리와 합리적인 간호 관리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을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간호사의 직무 환경 개선 및 간호사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S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암병동과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연구 대상의 표본수는 G-Power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표본크기는 108명이었다. 총 표본 수는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20명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설문이 부적절한 6명을 제외하고 114명을 최종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임상경력, 종교, 결혼상태의 5문항을 측정하였다.

2.3.2 직무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Koh와 Kim[11]이 개발한 도구를 Ju[12]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호업무에 관한 6문항, 역할갈등에 관한 5문항, 전문지식에 관한 4문항, 의사와 갈등과 관련된 3문항, 심리적 부담감과 관련된 3문항, 대인관계에 관한 6문항, 간호사 대우에 관한 5문항, 근무표에 관한 7문항, 환자와 보호자에 관한 4문항의 총 9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나타낸다. Ju[13]의 연구

에서 Cronbach's $\alpha=.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3 신체화 증상

본 연구에서 신체화 증상은 Jo와 Park [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화 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순환기 장애, 소화기 장애, 호흡기 및 기타 기관의 장애, 두통과 통증 등 신체적 기능 이상과 관련하여 최근 7일간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1점은 '전혀 없다', 5점은 '아주 심하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o와 Park [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로 측정되었다.

2.4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측면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었고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간호국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 사용하였고,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비교는 t-test와 χ^2 검증을 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군간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14명으로 암병동 간호사는 54명이었으며 일반병동 60명이었다. 암병동 간호사의 연령은 26~30세가 40.7%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일반병동 간호사도 26~30세가 61.7%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80.0% 이상이 모두 학사 졸업이었으며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모두 1년 이상 5년미만

의 경력이 가장 많았다. 연령, 학력, 경력, 종교, 결혼상태에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Homogeneity tes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4)

Variables	Categories	Nurses Working in Cancer Ward (n=54) (%)	Nurses Working in General Ward (n=60) (%)	X ² or t(ρ)
		Age (years)	20 ~ 25	
	26~30	22 (40.7)	37(61.7)	
	31~35	8(14.8)	5(8.3)	
	36~40	5(9.2)	5(8.3)	
Education	Undergraduate	46 (85.2)	48 (80.0)	2.99 (.165)
	Graduate	8 (14.8)	12 (20.0)	
Nursing working career (Years)	<1	17 (31.5)	14(23.3)	1.22 (.231)
	1~5	27(50.0)	26(43.3)	
	6~10	5(9.2)	13(21.7)	
	>10	5(9.2)	7(11.7)	
Religion	Yes	37 (68.5)	32 (53.3)	0.18 (.782)
	No	17 (31.5)	28 (46.7)	
Marital Status	Single	35 (64.8)	45(75.0)	0.56 (.499)
	Married	19 (35.2)	15 (25.0)	

3.2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은 Table 2와 같다.본 연구 대상자 중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3.45점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3.67, p=.021$). 신체화 증상은 암병동 간호사가 24.87점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21.1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5.63, p<.001$).

Table 2. Comparison of the level of job stress and somatic symptoms of the nurses in cancer ward and the nurses in general ward (n=114)

Categories	Nurses Working in Cancer Ward (n=54)	Nurses Working in General Ward (n=60)	t	p
Job stress	3.45±0.56	3.23±0.26	3.67	.021
Somatic symptoms	24.87±4.15	21.10±5.15	5.63	<.001

3.3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r=.63, p<.001$), Table 3과 같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간의 상관관계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r=.58, p<.001$) 두 군간 모두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도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s of job stress and somatic symptoms of the nurses in of practice of breastfeeding in cancer ward and the nurses in general ward (n=114)

Variables	Somatic sympto,s	
	r(p)	
Job stress	Nurses Working in Cancer Ward	.63 (<.001)
	Nurses Working in General Ward	.58 (<.001)

4. 논의

본 연구는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을 비교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와 신체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객관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에서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3.45점이었으며, 일반병동 간호사는 3.23점으로 암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평균 0.22점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Lee와 Lee[14]의 연구에서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3.76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특성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인 반면, Lee와 Lee[14]의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상자였기 때문에 간호 업무 영역의 범위나 인력배치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임상시험 연구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g[15]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점수가 2.68점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점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증증도나 직무 강도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를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신체화 증상은 암병동 간호사가 24.87점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21.1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16] 간호사들은 근골격계와 관련된 허리통증, 근육통과 신경통을 주로 호소하였는데 주로 물품 준비나 의료장비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보았을 때, 간호사의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업무환경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근무환경의 개선 및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업무분장관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병동 간호사의 주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항암제, 말기 암 환자들의 고통과 죽음, 호스피스 간호와 관련된 업무들로[17] 심리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에 따른 간호사의 신체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18], 암병동은 일반 병동에 비하여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신체화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업무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암병동 간호사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및 호스피스 간호와 관련한 심리적 지원을 통하여 암병동 간호사의 직

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나타날 수 있는 신체화 증상을 예방하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을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암병동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이 모두 높았으며,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모두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병동 간호사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및 호스피스 간호와 관련한 심리적 지원을 통하여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나타날 수 있는 신체화 증상을 예방하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Y. S. Lee & H. Y. Kim. (2022).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justice on job embeddedness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8(3), 228-237. DOI : 10.11111/jkana.2022.28.3.228

[2] H. R. Park & S. J. Lee. (2022). Analysis of anxiety, stress and coping type of health-care worker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2), 57-66. DOI : 10.5762/KAIS.2022.23.2.57

[3] S. Y. Lee & D. H. Kim. (2019).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nurses' job satisfaction. *stress*, 27(3), 215-223. DOI: 10.17547/kjsr.2019.27.3.215

[4] H. J. Choi, Y. M. Lee & H. J. Park.(2021). Effects of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n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by comprehensive nursing care medical service ward nurse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14(3), 87-98. DOI : 10.34250/jkccn.2021.14.3.87

[5] S. M. Jang & E. A. Kim. (2019). Factors influencing musculoskeletal disorder symptoms in hemodialysis nurses in tertiary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5(5), 478-488.

DOI : 10.11111/jkana.2019.25.5.478

[6] J. S. Ki & S. M. Choi-Kwon. (2021). Comparison of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problems between leavers and stayers: focused on novice nurse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3(2), 91-99. DOI : 10.7586/jkbns.2021.23.2.91

[7] E. H. Hwang & K. H. Kim. (2021). Effect of work intensity, job stress and somatization symptoms on certified care assistants' burnout at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3(1), 24-33. DOI : 10.17079/jkgn.2021.23.1.24

[8] J. Li, Q. Su, X. Li, Y. Peng & Y. Liu.(2021). COVID-19 negatively impacts on psychological and somatic status in frontline nurs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4, 279-285. DOI : 10.1016/j.jad.2021.07.031

[9] B. Gu, Q. Tan & S. Zhao.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psychosomatic wellbeing among Chinese nurses: a cross-sectional survey. *Medicine*, 98(22), e15836. DOI : 10.1097/MD.00000000000015836

[10] A. McVicar. (2003). Workplace stress in nursing: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4(6), 633-642. DOI : 10.1046/j.0309-2402.2003.02853.x

[11] M. O. Koh & M. J. Kim. (1985) An analytical study of work stress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5(3), 39-49, DOI : 10.4040/jnas.1985.15.3.39

[12] J. H. Ju. (2009). *ER nurses's job stress main factors influencing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13] S. G. Jo & M. S. Park. (2013).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n somatization symptoms among nurses officer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31(2), 77-90.

[14] E. J. Lee & E. S. Lee. (2020).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the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units and the nurses in general uni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3), 351-360.

[15] S. E. Song.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trial nurses*.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16] E. J. Ryu & S. E. Choi. (2017). Effects of emotional labor, compassion fatigue and occupational stress on the somatization of nurses

in hemodialysis uni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6(2), 65-73.
DOI : 10.5807/KJOHN.2017.26.2.65.

- [17] A. M., Mazzella Ebstein, L. Sanzero Eller, K. S. Tan, C. Cherniss, J. S. Ruggiero & J. P. Cimiotti. (2019). The relationships between coping, occupational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newly hired oncology nurses. *Psycho-oncology*, 28(2), 278-283.
- [18] S. Gandhi, G. Sangeetha, N. Ahmed & S. K. Chaturvedi. (2014). Somatic symptoms perceived stress and perceived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working in an Indian psychiatric hospital. *Asian Journal of Psychiatry*, 12, 77-81.

박 점 미(Jum-Mi Park)

[정회원]



- 2017년 2월 : 한양대학교 모성간호학 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모성간호학, 난임
- E-Mail : jump@nsu.ac.kr

신 나 연 (Shin-Na Yeon)

[정회원]



- 2003년 8월 ~ 현재 :분당차병원 간호사
- 2011년 이화여자대학교 성인간호학 석사 졸업
- 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성인간호학 박사 졸업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 E-Mail : nabong78@chamc.co.kr